

무역의 발달은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국제 분업이란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이 발달하면 국가 간 특화가 촉진되며, 이는 다시 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즉 무역과 국제 분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 1 특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I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자유 무역으로 국제 분업과 무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 분업과 무역은 왜 필요할까?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아랍에미리트에는 석유 매장량이 많은 대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국토 대부분이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국가에서 농작물을 수입하는데, 그중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한다.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농경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보유해 전 국토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에티오피아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로 전체 수입액의 20% 내외를 차지한다. 에티오피아는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5. 8. 4.-

❓ 아랍에미리트와 에티오피아는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품목을 어떻게 얻고 있을까?

위 사례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무역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작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농작물을 수출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분업과 무역은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얻는 데 필요하다. 이는 자원,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가 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생산 요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간 경제 여건이 달라진다.

세계 각국은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와 자원, 기술 및 서비스까지 외국에서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를 위해 무역에 크게 의존하였다.





※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분업과 무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하다. 각 나라가 보유한 기술 수준, 자본, 노동력 등의 차이에 따라 같은 상품이라도 나라마다 생산비가 달라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은 직접 만들어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품은 수입하여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때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드는 것을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가질 때도 국가 간 무역은 필요하다. 이는 **비교 우위**에 따른 것으로 한 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섬유 생산의 기술력이 모두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섬유는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섬유를 모두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얻은 이윤으로 섬유를 수입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 차이 및 이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로 초래된 국제 분업과 무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11과 파로실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의 변화

구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5년
1위	철광석	섬유류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2위	중석	합판	철강판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3위	생사	가발	신발	신발	무선 통신 기기	선박 해양 구조물
4위	주연탄	철광석	선박	정장 기기	선박	무선 통신 기기
5위	오징어	전자 제품	음향 기기	선박	석유 제품	석유 제품

(한국 무역 협회, 2016)

공업에 집중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으로 눈을 돌렸다. 2000년대 수출 1위와 2위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했고, 무선 통신 기기, 선박, 석유 제품은 3~5위에 올랐다.

- 『연합뉴스』, 2016. 7. 11. -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축대밭이 된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경제 성장의 활로를 찾아 나섰다. 우선 당시 넉넉했던 수산 자원을 활용해 한천, 오징어를 외국에 내다 팔기 시작했으며, 철광석, 흑연 등의 광물도 수출했다. 이후 1960~1970년대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주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의류, 신발, 합판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수출을 이끌었다.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

④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이 시기에 따라 변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소스론
확인

- 1 ()은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서 유리한 것만을 생산하여 특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까닭을 서술해 보자.